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5

늘 푸른 숲

2026. 7

은세대 연합예배 '하나되다'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나누는 프렌즈 데이

내 영혼의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단기선교 아카데미 복음의 빛진 자의 순종

공감의 장 내 삶의 거룩한 곳, 범어 성전

인터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길을 걷다'

부활의 예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약속을 붙드는 믿음



이지훈 담임목사

클라라 켄트라는 미국 여성분의 남편은 1950년 6월 25일의 한국전쟁에 참전 하셨다가 안타깝게 1950년 12월에 북한군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아내에게 꼭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편지를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수색을 통해 남편의 유해와 유품이 발견되었고, 결국 남편의 유해가 63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아내인 클라라 켄트의 사연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꼭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편지를 받았음에도 이분은 63년간 재혼하지 않고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미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해도 ‘남편이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남편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 전쟁에 나가며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상황보다 남편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남편을 붙든 이분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 여드려야 할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Yes’입니다.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분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No’입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을 때, 그분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wait’입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Yes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No와 Wait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절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Wait 하실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들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읽은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입니다. 7월 한 달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을 열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시원한 물 한 잔이 너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컵 속의 물이 우리의 시간이라면
이제 절반만 남은 셈인가요?

어쩌면 컵 속의 물이 시간이 아니라
재정 형편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계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신가요?

비워진 절반을 바라보며
실망과 걱정으로 조바심 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눈에는 컵이 절반이나 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나머지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컵의 물이 사라질수록 보이지 않는 공기가 그곳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우리가 비워질수록 그리고 더욱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서 비워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한 해의 후반을 다시 시작하는 7월,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 July | Vol. 445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7월을 열며 _ 신규식 집사
- 05 목차
- 06 예배 | 온세대 연합예배 _ 김기운 은퇴장로, 정성원 장로, 이신훈 집사
- 08 120주년 기념 |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이야기
- 10 주일학교 |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나누는 ‘프렌즈데이’ _ 곽소정 전도사
- 12 교사세미나 |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만나다 _ 배신애 집사
- 13 민군연합세미나 | 아름다운 동행, 그 거룩한 동행 _ 김홍년 집사
- 14 내 영혼의 찬양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_ 교회보팀
- 16 나의 한 구절 | 박영희C 집사
- 18 UPS 양육학교 | 구약의 파노라마 속으로 _ 오상현 집사
- 19 UPS 양육학교 |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를 마치며... _ 우선향 집사
- 20 센터스쿨 |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만남의 축복 _ 김정희D 집사
- 21 단기선교 아카데미 | 복음에 빛진 자의 순종 _ 문주영 청년
- 22 공감의 장 | 내 삶의 거룩함 중에 거룩한 곳, 범어 성전 _ 서은주A 집사
- 24 인터뷰 |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길을 걷다 _ 임미숙 전도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6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5호 | 발행일 2026년 7월 5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중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하나되다 온세대 연합예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와 환경, 생각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온세대 연합예배’에서는 그 모든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과 작은 아이의 고사리 손이 함께 모아져 기도하는 모습,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 온 믿음의 선배들과 이제 막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는 어린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했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세대는 서로 경쟁하거나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을 이어 주고 사랑을 나누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의 모습을 통해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산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120년 역사의 범어교회가 그냥 세월이 만든 120년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역사가 이분들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앞으로도 이러한 예배가 계속 이어져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 145:4)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이 믿음의 다리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신앙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기운 은퇴장로(이삭회)

대대를 이어 흐르는 은혜

이번 ‘온세대 연합예배’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참으로 감격스럽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대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같은 말씀, 같은 찬양

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배에서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이들과 손녀까지 4대가 나란히 무대에 올라 가족특송을 드렸습니다. 증조할머니부터 어린 증손녀까지 4대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기억이자 집안의 큰 영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온 가족이 모여 화음을 맞추고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자 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는 긴장도 되었지만, 4대의 마주 잡은 손과 서로를 향한 눈빛 속에 흐르는 따뜻한 사랑 덕분에 기쁨으로 찬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이 성도님들께도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졌기를 바라며,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살아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늘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믿음의 가정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 정성원 장로(2남전도회)



모든 것이 은혜

오늘 우리 가족은 손을 맞잡고 찬양 "모든 것이 은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매형의 어머니,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어린 조카들까지. 갓난쟁이부터 머리 희끗한 어른까지, 3대의 목소리가 한 찬양 안에서 포개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어요. 보이지 않는 새벽마다, 누군가의 굽은 등과 젖은 무릎이 먼저 이 자리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 기도가 강물처럼 흘러, 오늘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까지 닿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 78:3~4)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믿음도, 이 가정도, 함께 부른 이 찬양마저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 대에서 멈추지 않고, 품 안의 아이들에게 다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잇겠습니다.

• 이신훈 집사(베드로청년회)



범어 가족신문 만들기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이야기

올해는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으로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성도로, 가정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이시자, 주인으로 친히 역사하시며 성도의 한 가정, 한 가정과 함께하신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의 시간을 주일학교 친구들의 작품들에서 발견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2026 뽀뽀가족신문 전시회
 날짜 : 7월 5일(주일) ~ 7월 26일(주일)
 장소 : 1층 주교의 뜰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나누는 ‘프렌즈데이’

유년부 아이들이 한 해 두 번,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을 따라 맺은 열매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러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열매 잔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프렌즈데이’ 전도 축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프렌즈데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새 친구를 26명이나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프렌즈데이’를 준비하며 아이들과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떠올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서를 넘어 범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손잇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 기도했고, 교사와 부모, 교회의 어른들도 그 친구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프렌즈데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리는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초대장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전해주기 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는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그같이 흘려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리딩 지저스, 말씀 암송, 미션북, 성가대 활동 등을 통해 정말 열심히 열매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자신이 초대한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초대장을 건네고, 친구가 교회에 오자 자신이 모은 열매를 기꺼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누어 준 열매로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아이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프렌즈데이’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계속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소정 전도사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만나다

조용한 토요일 오후, '교사 세미나' 강의를 듣기 위해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주말의 여유를 반납해야 하는 여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사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내 '이 자리에 함께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each에서 touch'로, 마음으로 다음 세대 만나기〉라는 주제로 송주현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지나온 사역을 들으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같은 높이로 낮추어야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야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들을 담은 교사가 되어야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교사의 본분임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서, 지금 나는 아이들을 어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판단했구나' 싶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우리 영아부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 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올 한해 끝날 무렵이 되면 내년부터는 쉬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또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을 나를 기대해 봅니다.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순종하는 교사가 되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 배신애 집사(영아부)

아름다운 동행, 그 거룩한 동행

지난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지역사회 & 이웃과 함께’라는 일환으로 우리 지역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과의 그 거룩한 동행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집회를 다시 돌아봅니다.

“청년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민군연합대성회는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및 영천 3사관학교 등 대구·경북 지역을 수호하는 용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각 부대의 용사들이 열을 지어 교회로 들어설 때, 군 복무 시절의 추억과 함께 몽글한 감동이 물려왔습니다.

민과 군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인데,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 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큰 은혜로 발견하게 됩니다.

민과 군이 한 팀을 이루어 찬양하는 시간, 민간교회 연합찬양대의 귀한 섬김과 군악대와 군 중창단의 연주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50사단 군악대가 영화 미션의 주제곡 ‘Nella Fantasia’를 선사해 주었으며, 육군·공군의 믿음의 지휘관들로 구성된 중창단의 특별 찬양은 함께한 성도들과 용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용사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청년 다니엘이 되라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습니다. 부대 복귀 시에는 용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부대별로 나눠주는 등 구석구석에서 군 선교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큰 행사가 가능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민·군이 연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동행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홍년 집사(군선교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7월의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기대를 더 붙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문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금해지고, 낙심하며 흔들렸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이 찬송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이 곡은 무너진 마음의 끝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송을 붙들고 7월의 문을 새롭게 열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아덜레이드 애디슨 폴라드(A.A. Pollard, 1862-1934)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백을 담고 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아덜레이드 애디슨 폴라드는 1862년 미국 아이오와주 블룸필드에서 태어나 ‘무디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꿈꾸었다.



평소 당뇨로 몸이 약했던 폴라드는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저를 낮게 해 주신다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후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그녀는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선교 모금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폴라드는 선교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점차 마음속에는 낙심과 초조함이 깊어졌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고, 원망이 마음속에 쌓여갔다. 결국 그녀는 선교의 꿈마저 포기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1902년 어느 날, 절망 속에서 참석한 기도회에서 그녀는 한 노인의 기도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종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플라드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열심을 앞세우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읽던 그녀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날 밤 눈물로 써 내려간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이다.

이후 플라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자 막혀 있던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프리카와 영국, 미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고, 72세의 나이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지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진흙을 정성껏 빚어가듯,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더딘 응답조차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의 손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2026년 남은 시간은 조급함이 아닌,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이 오래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달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 낙심이 되거든,
하나님의 성공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봄의 법칙 / 주대준」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그대로이고, 기다려도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매번 느낍니다.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늘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다시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상황을 붙들기보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를,
그리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박영희C 집사(바울청년회)

구약의 파노라마 속으로

예배를 마치고 본당을 나서는 길, 로비에 세워진 ‘구약의 파노라마’ 안내 배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의지가 약해 선뜻 신청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옆에서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고, 마침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모아 다 같이 등록하면서 비로소 용기를 얻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한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들이 부분별로 끊어져 있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 시대순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책을 저술한 작가의 관점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바라보니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 처럼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게 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를 길을, 곁에서 함께 걸어준 딸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대하는 저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글자roman 보였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담긴 생생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번 과정은 제 신앙생활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소중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는 매일의 일상에서 더 깊이 읽어내려갈 생각에 무척 기대됩니다.

• 오상현 집사(바울청년회)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를 마치며...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 양육학교는 4월 16일부터 8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생각에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지만, 박민열 강도사님의 열정적이고 실제적인 강의가 거듭될수록 그리스도인의 기본 진리 위에 신앙의 성숙함이 플러스 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강도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는 수강생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셨고, 매시간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신 강의를 통해 기도, 교회, 성례, 예배, 헌금, 교제, 전도, 영적 전쟁이라는 8가지 기본 진리들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첫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교회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례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헌금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제와 전도,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며, 기본이 견고할 때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강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매주 강의가 기다려지게 하던 조원들의 섬김과 배려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교제의 시간에 각자 강의를 통해 깨달았던 점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도전과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시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양육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범어교회에 이런 좋은 양육학교가 있음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 우선향 집사(성사모)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만남의 축복

4년 전 하나님께서 범교교회로 부르시면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온 탕자와 같았던 저에게, 낯설고 어려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인 새가족을 섬기셨던 황영아 집사님과 사랑방 목사셨던 이지선 권사님, 손명진 집사님의 손길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하용병 목사님과 김은주 사모님께서 안식년으로 대구에 머무르실 때, 사모님께서 저희 사랑방에 오시게 되었고 이후 캄보디아로 돌아가실 때, 첫째 딸 보라와 함께 꼭 방문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지키게 되면서 센터스쿨 교육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선교는 보내지는 사람 ‘고어’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센터’의 헌신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 목사님 부부께서 대구에 머무르실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섬겼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만났을 때 가능했던 ‘멤버케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엡4:4)”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능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저는 정말 작은 달란트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붙여주신 센터스쿨 공동체와 선교팀의 기도와 헌신을 품고 가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누구보다도 낮은 자가 되어 섬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어린아이가 소중히 여겼을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마음으로 동역자가 된 팀원들과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온 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센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다음 걸음에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정희D 집사(바울청년회)

복음에 빛진 자의 순종

올 연말, 저는 일본으로 단기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의 길은 세계 늘 새로운 도전이자 믿음의 걸음입니다. 선교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단기선교 아카데미에 참여하며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저는 선교를 이전보다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뤄가시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존재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누리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맡겨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운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저는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욱 깊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저는 선교팀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동역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열방 땅과 그 영혼들을 주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낯선 환경과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작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만날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지길, 그리고 선교의 현장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영적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단기선교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선교의 이야기 속에 기꺼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문주영 청년(청년2부)

내 삶의 기록함 중에 기록한 곳, 범어 성전

제가 처음 범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함께 서울과 천안에서 생활하다가 2000년 여름쯤, 다시 범어교회로 내려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발령지를 따라 천안에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던 중, 하나님께서는 친정 식구들이 사는 대구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장 7, 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가까이에 내려오기를 주저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소년 때의 우의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예레미야 2장 2절, 이 말씀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00년, 다시 범어교회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더 깊은 말씀의 은혜와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제 모든 삶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는 두 딸의 신앙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다녀온 딸들과 말씀의 은혜를 늘 나누었고, 개학 전 열리는 주일학교 특별새벽기도회뿐만 아니라 어른 금요철야예배에 두 자녀를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회를 오가는 동안에도 차 안에서 찬양을 드리며 매주 부흥회를 가지는 것과 같은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은 제 삶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기쁘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주일 예배 그 한 시간 동안 경험하는 말씀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주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근 30여 년을 한결같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또 무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로 타 교회로 옮겨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제 인생에 소중하고 또 감사하지 않은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예전 구 성전 금요일기도회 때, 옆 사람의 입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할 만큼 1, 2층에 성도들이 차고 넘쳤던 기억이 아직 선명합니다.



그러는 동안 바로 위의 언니와 여동생이 범어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열매 맺음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역이심을, 그래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도에 순종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거룩함 중에 거룩한 곳 범어 성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고 행복한 성도들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리라 믿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집을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예배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 서은주A 집사(소망6 사랑방 목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길을 걷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찬송가 324장 4절의 찬양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임미숙 전도사. 어린 시절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청년 시절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임미숙 전도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Q. 전도사님의 유년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A. 저는 경북 영덕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니었지만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며 오 남매 모두를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잠시 교회를 멀리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더군요.

Q.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A. 청년 시절 대구에서 생활하며 총일교회에 출석하던 때였습니다. 산 기도와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고, 찬양대를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특히 고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당시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 지금은 목회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Q. 신앙생활과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A. 청년 시절에는 총일교회 담임목사님이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 중심의 목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첫 사역지로 보내 주신 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님이 제 신앙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혼 당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과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모태 신앙'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사역 중 겪는 영적인 고민이나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면 늘 기도로 답해 주셨고, 때로는 며느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님을 통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신앙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해 주셨습니다.



Q. 전도사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처음부터 사역자가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특히 충일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첫 사역지인 설화교회로 가라고 권면하셨을 때는 너무 서운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역지로 향하던 길에 들었던 찬송가 324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Q. 전도사로서의 첫걸음은 어떠하셨나요?

A. 첫 사역지였던 설화교회는 제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주 월요일이면 기도원에 올라가 하루를 기도로 보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사역의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 중에 특정 성도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심방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인 줄 알았지만 순종하여 찾아가 보면 실제로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설화교회에서 3년, 평리교회에서 3년, 북부교회에서 3년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 두 남동생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믿음이 회복되도록
- 한국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 범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도록
- 맡겨진 교구 성도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도록

Q. 범어교회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A. 북부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을 통해 범어교회 청빙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교회라 나와는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지원해 보라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마감 직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범어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교구 사역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알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범어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9년이 되어갑니다.

Q.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돌아보면 제 삶은 제가 계획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 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리 교회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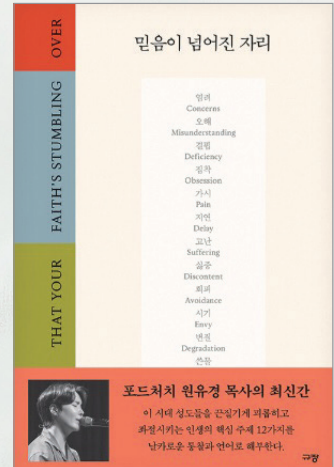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믿음이 넘어진 자리 (원유경, 규장, 2026)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책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뿐이다.

“하나님이 제게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엎드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네 두려움에 근거한 네 기대와 바람이 좌절된 이 순간조차, 이 상황이 아닌, 결과가 아닌, 오직 나에 대한 믿음 위에 서라. 나를 믿어라. 나의 온전한 구속을 믿어라.’ 본문 中



마음의 문제 (한수희, 터블넥프레스, 2025)

불안이라는 감정은 넓은 세상 앞에 홀로 옷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나 혼자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혼자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고, 모두가 답을 찾아가며 사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해주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상상하며 마음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

“걸어도 걸어도 우리는 작은 배처럼 흔들린다. 살아도 살아도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걷는 것뿐이다. 지금부터 나의 과제는 ‘잘 나이 드는 것’이다. ‘좋은 어른’까지는 어렵겠지만, 사실 ‘좋은’ 뭔가가 되려는 것 자체가 음흉한 야심 같고, 그냥 그러저럭 나쁘지 않은 정도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본문 中



6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세계선교위원회는 7일(주일), 14일(주일), 21일(주일) 오후 5시에 일본선교연구소 소장 김대호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범어 단기선교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 (토) 오후 3시 예루살렘채플에서 우리는교회 송주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주일학교 교사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4(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찬양올동 경연대회 및 모범 어린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7일(주일)~8일(월) 예루살렘채플에서 나라사랑 (대구·경북) 민군 연합대성회가 있었습니다.

22일(월)~24일(수) 오후 6시 30분에 대동교회에서 제28회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여성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와 중등부의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중등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정화중학교와 동도중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학기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범어동 학원가 일대 노방전도를 합니다. 중등부는 25일(목) 오후 3시에, 고등부는 27일(토) 오후 5시에 선생님들이 함께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25일(목)~27일(토)에 새벽이슬 청년부가 청도 각남교회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26일(금) 금요기도회에 120주년 기념 초청설교로 신성욱 교수를 초청 강사로 모시고 범어교회 12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29일(월)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곁에 온 열방'이라는 주제로 문성주 목사를 강사로 갈릴리채플에서 동부·동신·범어교회 연합선교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정겹게 건네어주시고 가득 담아주시는 손길에서 따뜻할 때 든든히 먹으시려는 온기 가득한 마음까지 전해 받습니다. 덕분에 주일 오후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삶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 고통의 지배를 받아서도 곤란하다.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내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라.”
독서모임 중

“성도가 망각해야 할 것은 세상과 사람이 주는 상처와 고통입니다. 그러나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상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 설교 중

“우리의 가시는 사람의 눈에서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 중

“헌신은 내 열정이 아니라 주권의 이동이며, 복음의 진리에 압도된 결과이다”
양육학교 중

“신앙의 깊이는 사역을 잘하기 위한 권능의 획득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양육학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어다인 (어효성, 이상은)



신채은 (신동윤B, 지송화)



김리안 (김사은, 손한나)



이르연 (이신훈, 이지영C)



배서우 (배성열, 김혜림)



이소요 (이호선, 박지영)



정시온 (정성진, 박진향)



주이레 (주영광, 성승기)

- 출산 • 김은미A 집사 (서민규 집사) 득녀 : 6월 10일(수) • 문소연 성도 (권지훈 성도) 득남 : 6월 11일(목)
- 결혼 • 이명옥 집사의 장녀 김서우양 : 6월 13일(토) 호텔 라온제나 골레르홀
 - 신영철A 장로(김은자A 권사)의 차녀 신혜경양과 장민석군 : 6월 13일(토) 아리아나호텔 아리아나홀
 - 김성연 집사(최숙이 집사)의 장남 김정석군 : 6월 27일(토) 인터불고호텔 파크빌리지
- 공연 • 전보라 트롬본 리사이틀 : 6월 24일(수) 수성아트피아
- TV방송 • 정영재A 집사 : 6월 21일, 28일(주일) TV조선 <신 성공시대>

7월 교회 행사 안내

- 5일(주일): 맥추감사주일, 정기제직회
- 12일(주일): 친교위원회 주관예배(오후)
- 18일(토) : 714연합기도대성회(오후1:30~8:00)
- 19일(주일) : 성찬식(1~4부)
- 24일(금) : 120주년 초청설교 유병휘 목사 (사림교회 담임)
- 26일(주일) :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설교 정기당회, 하사모주관예배(오후)

7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4일(토)~25일(토) : 매주 토요일, 청소년 선교훈련 WAVE
- 4일(토)~5일(주일)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11일(토)~12일(주일), 19일(주일)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18일(토)~19일(주일)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 24일(금)~26일(주일) : 소년부 여름수련회
- 25일(토)~26일(주일)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28일(화)~30일(목) : 중등부 여름수련회
- 26일(주일), 27일(월)~29일(수) : 고등부 여름수련회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박용수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studio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2026 범어교회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믿음의 항해 (히 12:2)

일시: 7/4(토), 5(주)

장소: 지하 1층 영아부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믿음의 항해 (히 12:2)

일시: 7/11(토), 12, 19(주)

장소: 지하 1층 영아부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믿음의 항해 (히 12:2)

일시: 7/18(토), 19(주)

장소: 지하 1층 영아부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믿음의 항해 (히 12:2)

일시: 7/25(토), 26(주)

장소: 2층 초등부실

소년부 여름수련회

주제: 믿음의 항해 (히 12:2)

일시: 7/24-26(금-주)

장소: 신화랑 풍류마을 (청도)

중등부 여름수련회

주제: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시 116:12)

일시: 7/28-30(화-목)

장소: 성호리조트 (경주)

고등부 여름수련회

주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겔 16:6)

일시: 7/26-29(주-수)

장소: 평산아카데미 (칠곡)

영어예배부 여름캠프

주제: Jesus is... (눅 24:44)

Youtube 와

일시: 8/3-16(월-주)

장소: 지하 1층 영어예배부실

다음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